

# 기술개발투자 稅額공제 누진제로 개선

## — 科技진흥회의, 이월(移越)기간도 5년으로 연장

**大德** 연구단지내 한국과학재단 회의실에서 7월 8일 盧泰愚대통령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崔珏圭 부총리는 「과학기술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대책」을, 金鎮炫 과학기술처장관은 「주요 과학기술혁신시책」을 각각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崔珏圭 부총리는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나, 과학기술 예산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 총예산에 대한 과학기술 관련예산의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鎮炫 과기처장관은 『아직도 기술개발자금의 조달, 기업연구소부지의 사용, 병역특례연구요원의 확보, 연구개발 기자재와 試藥의 適期도입등에 많은 어려움이 가로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과학기술혁신의 애로요인을 과감히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年內에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金鎮炫장관은 2000년대 선진 7개국에 진입하기 위한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G7 프로젝트)을 위해 차세대 자동차등 총 11개 연구개발과제에 2001년까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이 총 3조7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정부의 계획과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는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금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현행 10%)를 누진제(累進制)로 개선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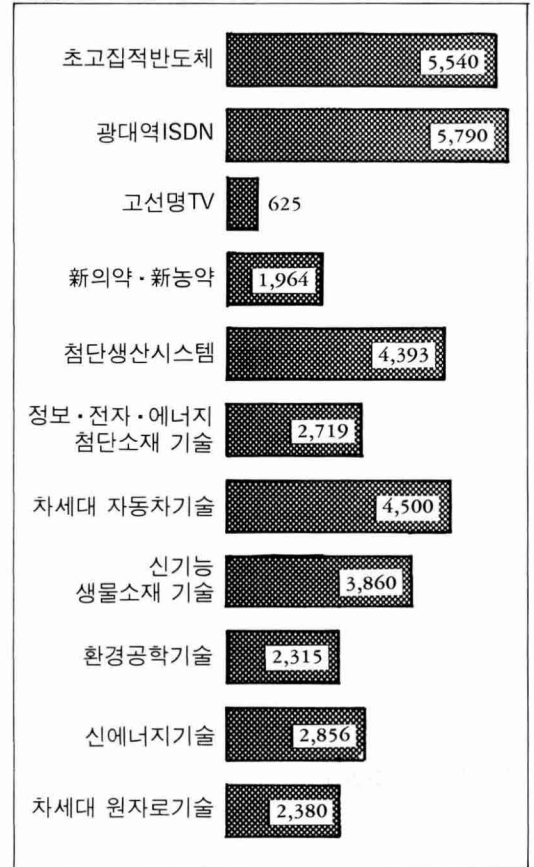
또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 중심 대학」의 운영방안을 올해안에 마련, 내년에 2개교를 지정하고, 社內기술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한편, 獨學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규모를 90년 GNP의 2.24%에서 올해 2.63%, 내년도에 2.8%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데, 이중 정부지원부분은 올해 총투자액의 23% 수준인 1조4천억원을 내년도에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국방부의 연구개발투자가 2천3백 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6% 증액됐음을 지적하면서, 투자방향도 防産기술중 첨단산업 및 민수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선도기술 개발사업 투자계획 (단위: 億원)



**또** 96년까지 1조원 목표로 추진중인 과학 기술진흥기금 마련을 위해 내년도에 정부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출연금등을 통해 2천3백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은, 정부 투자규모가 아직도 日本의 10분의 1, 미국의 50분의 1, 프랑스의 11분의 1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절대액의 부족현상을 보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기금은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관리하며, 기초과학 및 기반기술연구사업,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과학기술혁신대책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투자규모를 96년까지 통신·에너지, 제조부문은 4% 수준, 건설업부문은 3%수준까지 늘리도록 권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기관의 경영평가항목중 연구개발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을수 있는 기술개발자금은 올해 총 1조5천8백억원으로 전년대비 28%가 늘어났고,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엔 대출금리를 年 10%에서 8%로 인하, 기술창업자들의 의지를 북돋워주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심사 및 평가가 까다롭고 담보없는 신용대출이 어려우며, 적금가입 조건부대출 관행등 실제 이자율이 높아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술금융

확대보다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그동안 기술개발현장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을 분석, 앞으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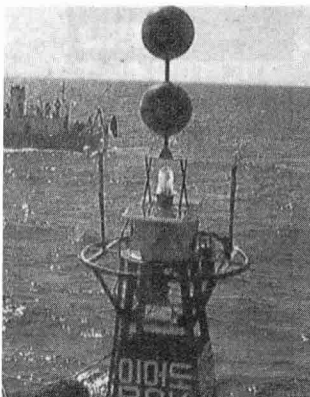
또 신기술제품의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기술입찰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금년 5월 개정, 구체적인 시행방법등을 하반기중에 보완할 계획이며, 공공부문의 국산신기술 제품의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권장, 신기술제품의 시장수요를 정부차원에서 조성키로 했다.

**한편** 과기처는 이날 대통령보고를 통해 지난 1년동안 준비해온 G7프로젝트(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 7개국권에 진입할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주력기술 개발과제는 모두 11개로 2001년까지의 투자규모는 정부 1조4천7백억원, 정부투자기관 5천9백억원, 민간기업 1조6천4백억원 등 총 3조7천억원이며, 올 7월말 연구수행기관이 결정되면,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또 과기처는 우수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원중심 대학의 운영방안을 금년중 마련, 93년에 2개교를 지정하고, 光州과학기술원도 95년 개교를 위해 내년부터 시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 특정 연구개발사업 10년...국내 科技수준 한단계 도약



한국해양연구소 이동영박사팀이 연구 개발한 실시간 해상상태 모니터링 및 예보 시스템 각종 해상정보 제공 및 해난사고, 유류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수 있는 무인자동시스템이다

**핵심** 산업기술을 중점개발해 국내과학기술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해온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을 맞게 됐다.

정부가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동원한 첫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선진국의 기술주권주의에 대응한 정부의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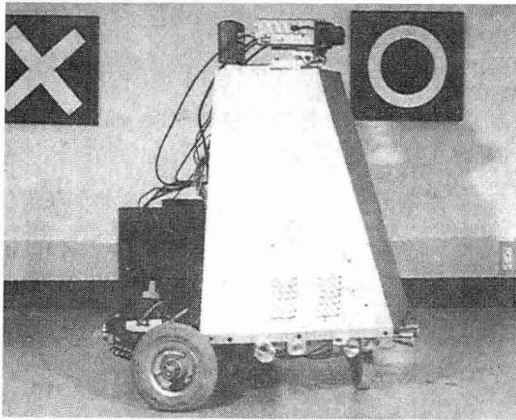
10년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첫해인 82년의 1백87억원(정부 1백33억원, 민간 54억원)등 총 9천6백64억원(정부

5천7백30억원, 민간 3천9백34억원)으로 참여한 연구원은 5만7천여명에 이른다.

연구결과중 기업화된 과제는 4메가디램·아라미드 펄프등 5백17건이며, 이중 기업화가 완료된 것은 2백31건이다. 또 출원된 산업재산권은 1천2백11건으로 국내 9백3건, 국외 3백8건이며, 해외에 기술을 수출한 과제는 6건으로 9백62만불(약 77억원)에 이른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특히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에 기폭제 역할을 담당해, 82년 54개였던 민간기업연구소가 92년 5월 현재 1천3백개로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7월 8일 92년도 제1회 과학기술진흥회의가 열렸던 大德과학재단 본관 2층에 전시됐던 「연구개발 성공사례 전시」중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연구과제를 소개한다.



**\* 지능형 이동로봇 개발 (사진 ▲)**

한국과학기술원의 양현승박사팀 연구

크기는 62×70×66cm, 무게 50kg의 감각기능과 인공지능을 갖춘 이 로봇의 이동속도는 초당 30cm. 화물운반용 로봇, 핵발전소등 위험환경내의 작업에 활용될수 있다.

산업자동화 및 무인화시스템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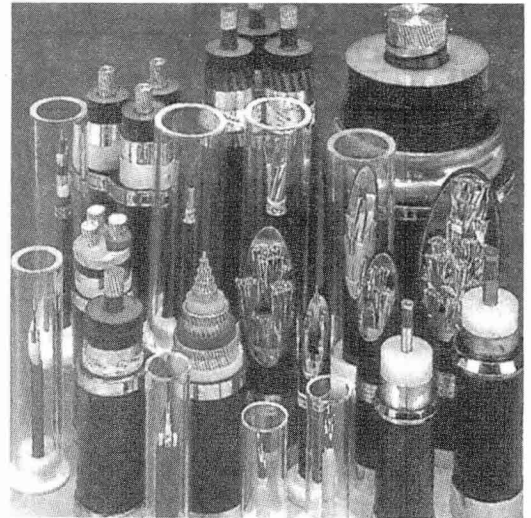
**\* 실시간 해상상태 모니터링 및**

**예보시스템 개발 (사진 ◀)**

한국해양연구소 이동영박사팀 연구

각종 해상정보 제공 및 해난사고, 유류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수 있는 무인자동시스템.

3시간 간격으로 해일·파고·파향·수온자료를 제공해준다. 어로작업·軍작전등 해상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주며, 태풍내습시 쏘연안에 대한 해상상태현황·예보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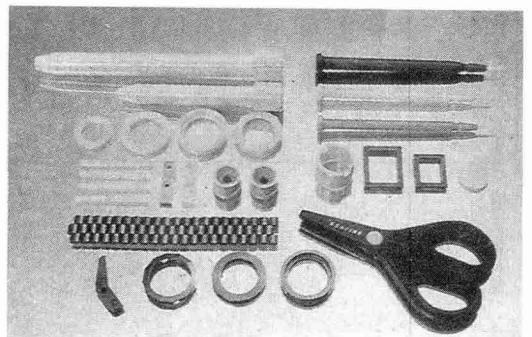


**\* 폼 스킨 통신케이블 절연체 (사진 ▲)**

한양화학 중앙연구소·민태익박사팀 연구.

특수화학발포제 및 산화방지제 첨가로 고속가공성 및 내열성·전기절연 특성등이 우수하다. 통신케이블(전화선)에 이용될수 있으며, 30년이상 수명이 보장된다.

현재 생산판매중이다.



**\* 산업용 엔지니어링 세라믹개발**

**(사진 ▲)**

쌍용중앙연구소 은희갑박사팀 연구

세라믹의 우수한 내열충격성·고온강도·내마모성을 응용한 절삭공구·세라믹부품·생활용품의 상표화가 가능하다.